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

성경: 삼상 4:1-7:2

- I.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언도록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건축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의 실재인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 빌 3:8, 12-14, 요 1:14, 계 21:2-3, 7:15, 딤후 3:15, 요 14:2, 23.

- 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언약궤의 내재적인 의미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
 - A. 언약궤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마 1:23.
 - B. 언약궤는 장막의 중심과 내용으로서, 교회의 중심과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언약궤가 장막에 관한 이상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항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출 25:22, 골 1:17하, 18하.
 1.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담고 있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표현과 계시이다 — 출 25:16, 31:18.
 2.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엡 2:21-22)의 중심이시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딤후 3:15-16, 비교 삼상 4:22, 계 3:20)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C. 금을 입힌 시팀 나무로 만들어진 언약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신성과 인성의 연합 곧 하나님과 사람으로 된 건축물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신다 — 딤후 4:22, 고후 3:17, 골 2:9, 히 9:4.
 1. 시팀 나무는 견고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질이다 — 출 25:10, 마 3:16, 4:4, 8:20, 9:12-13, 11:29, 12:19-20, 17:27, 20:28, 27:12, 14, 막 1:35, 6:39-41, 요 6:12, 7:6, 비교 행 16:7.
 2. 시팀 나무의 안과 밖에 금을 입혔다는 것은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스며들고 사람의 본성 위에 머물며, 그 결과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 출 25:11, 계 3:18상, 벰후 1:4, 비교 계 17:4.

D. 언약궤의 화해 덮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서로 만나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출 25:17-22.

1. 그리스도는 화해 제물이신 그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써(요일 2:2, 4:10) 화해를 이루시는 분(히 2:17),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키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2.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신성에 속한 빛 비춤과 그분의 인성에 속한 구속이 있는 화해 덮개이다. 화해 덮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누리는 장소이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함으로 은혜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이다 — 롬 3:25, 히 4:16.
 - a. 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화해 덮개 위에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비추어 나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출 25:18-20). 화해 제물의 피가 언약궤의 화해 덮개 위에 뿌려졌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한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레 16:14-15).
 - b.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말씀하실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III.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교회의 황폐함,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교회의 회복을 묘사해 준다 — 출 25:9-10, 26:26-30, 40:38.

- A. 장막의 중심과 내용인 언약궤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장막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중심과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출 25:22, 40:21, 골 2:9, 엡 2:21-22, 딤후 3:15.
- B. 언약궤와 관련된 역사의 첫 단계에서는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내용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약궤는 결국 장막과 분리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출 40:34-35, 삼상 4:1-7:2.
- C. 언약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수 3:3, 10-17).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간 것이다(민 10:33-36, 삼상 4:3-4).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계속)

- D. 언약궤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었다(시 68:1-18). 그러나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동안 하나님은 움직이실 의도가 없으셨다.
- E.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블레셋 족속과 전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강탈한 것, 심지어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과 안식과 이익을 위하여 그분을 억지로 자신들과 함께 나가시게 한 것을 의미한다.
- F. 원칙상,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번영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강탈하지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G.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의 필요로 대치하고 있다.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의 증거를 대치할 때, 타락이 시작되고 문제들이 발생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일 뿐 아니라(삼상 4:11, 13, 17-19, 21-22) 증거궤였다(출 25:22, 40:21).
- H.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하며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어야 했다.
- I.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이나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과거에 언약궤가 움직일 때 얻었던 승리에 근거하여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신뢰하였다.
- J.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의 손에 넘어가 언약궤와 장막이 분리되었고, 그 결과 장막은 실재 곧 합당한 내용물이 없는 빈 그릇과 같이 되었다(삼상 4:11-6:1). 이것은 교회 역사의 둘째 단계에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삼상 3-4장, 계 3:20).
- K. 타락한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체계를 신뢰하였다. 그들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 오기 전에,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어야 했다(수 6:2-4, 비교 9:14).
- L. 우리는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은 저의 건강이나 번영이나 안전이나 평안, 저의 안식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과 동역하는 참된 이기는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에 관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께 여쭙니다.” — 삼상 2:30 하, 35, 민 6:1-9, 비교 왕상 8:48, 렘 32:39.

메시지 4 (계속)

M. 이스라엘 자손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극도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은 언약궤 자체를 빼앗기고 말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삼상 2:30, 34, 4:10-18, 22, 시 78:61). ‘언약궤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인 ‘이가뵈’이 있음을 의미한다(삼상 4:21-22, 계 3:20).

IV. 나중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되찾게 되자, 언약궤는 먼저 기랴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이십 년 동안 머물렀고(삼상 6:2-7:2), 후에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삼하 6:1-11, 비교 삼상 1:24, 수 18:1). 이것은 2세기부터 많은 ‘오벧에돔’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임재(언약궤)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생활(장막)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다윗은 언약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곳인 시온산에 있는 자신의 성에 마련한 천막으로 옮겼다(삼하 6:12-19, 대상 15:1-16:1). 이것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이었지만 언약궤는 여전히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있었고 장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A. 이 상황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였던 다른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교회생활을 실행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B. 그러한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그들이 실행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천막으로 예표되는) 교회생활은 합당하지 않았다 — 비교 왕상 3:3-15.

VI. 결국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마치자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옮겨져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합당한 교회 안에 계시는 정상적인 상태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 왕상 8:1-11, 48, 엡 2:21-22, 3:16-21.

VII.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는 교회 역사의 예시로서, 교회가 바로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거쳐 온 길과 상황을 완전히 묘사해 주고 있다. 이 역사에는 다섯 가지 주된 방면이 있다.

A. 첫 번째 상황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이것은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으면서, 언약궤는 내용이 되고 장막은 언약궤의 표현이 된 것으로 예표된다. 이것은 교회의 첫째 단계를 묘사하는 그림이다. 이 단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내용이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 — 출 40:34-38, 엡 3:16-21.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4 (계속)

- B. 두 번째 상황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겨 언약궤가 장막에서 분리된 것으로 예표된다. 장막이 비어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묘사한다 — 계 2:4-5, 3:20.
- C. 세 번째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없으신 것이다. 이것은 언약궤가 장막 없이 있었던 것으로 예표된다. 언약궤는 먼저는 기랴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십 년 동안 있었고(삼상 7:1-2), 그 후에는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삼하 6:10-12) 장막과 분리되어 있었다. 교회 역사는 2세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오벧에돔이 있어 왔음을 보여 준다.
- D. 네 번째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부적합한 교회와 함께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위한 천막을 마련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모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약궤 곧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있는 교회는 적합하지 않다 — 삼하 6:17, 대상 15:1, 대하 1:4, 출 25:9.
- E. 다섯 번째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교회와 함께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언약궤가, 확대되고 증가되어 성전이 된 합당한 장막과 함께한 것으로 예표된다. 실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와 함께하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 시 90:1-2, 91:1-16, 92:12-15, 132:5, 8, 대상 28:11-20, 대하 3:1.